

인문학으로 풀어본 재정의 역사

조선시대의 재테크 방법은?

글 이성주

「엽기조선왕조실록」 저자,
문화칼럼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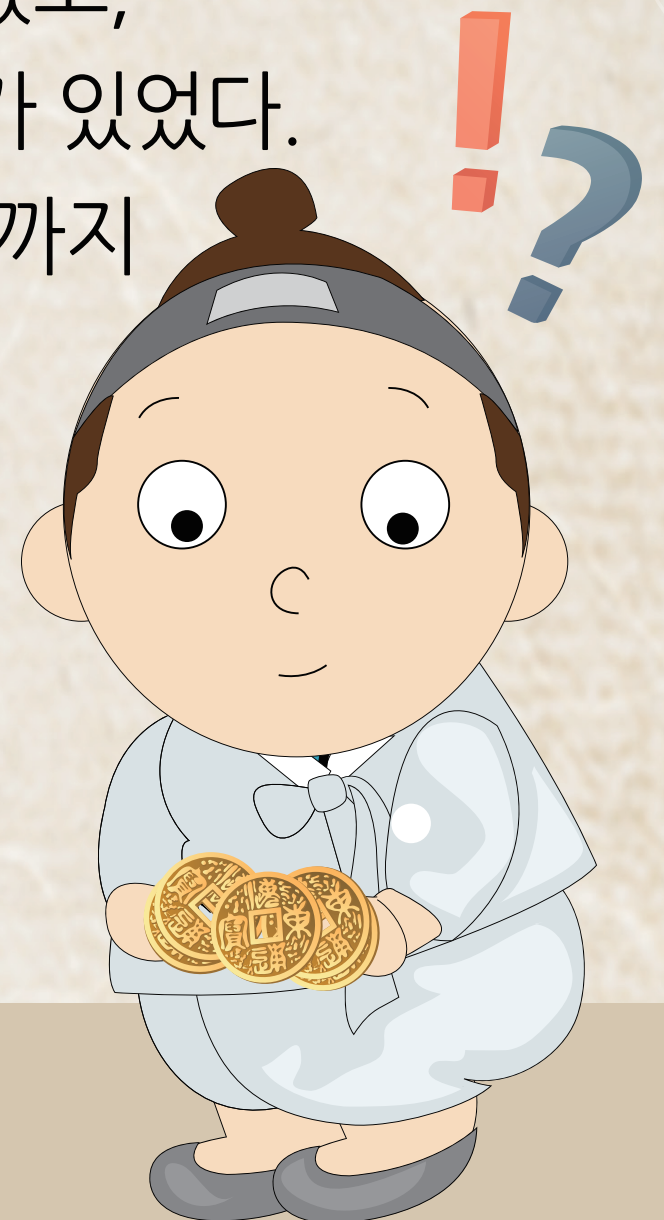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돈을 불리기 위한 욕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해왔다.
그런데 화폐가 없었던 시대에도 과연 **‘재테크’**가 있었을까?

조선 후기까지 상공업은 천시받았고,
‘사농공상’이라는 명백한 신분제 사회가 있었다.
또한 상평통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전까지
화폐는 쌀이나 면포 등으로
재테크를 제약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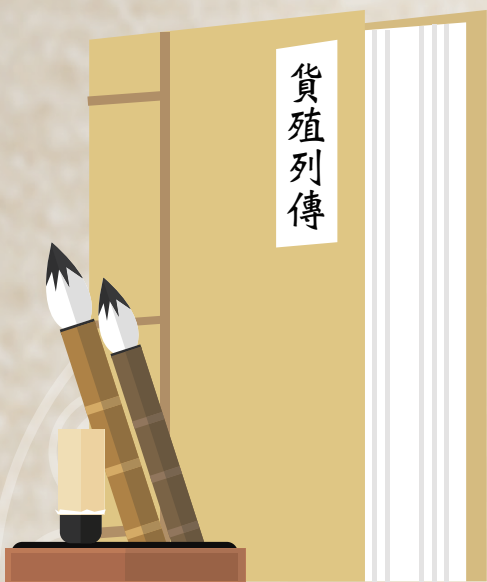
이런 상황에서 재테크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재테크에 열중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조선뿐만 아니라 동양사회에서 ‘돈’에 대한 개념은 매우 중요했다.

사마천의 《사기(史記)》〈화식열전(貨殖列傳)〉편을 보면
일찍이 돈과 투자에 대한 동양인들의 철학을 확인할 수 있다.

화식(貨殖)의 貨는 재물 화자이고,
殖은 불어난다는 의미이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풀어보면,
투자성공사례집인 것이다.



〈화식열전〉을 보면, 출신 성분이 비천한 노비부터
목장 주인, 과부, 재상 등등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재산을 불려나간 사례를 열거했는데,
이들 모두 재산증식의 비결을 이렇게 말했다

“부자가 된 사람은 반드시 기이함을 활용하여 승리했다(富者必用奇勝)”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
시장 상황의 변동을 예의 주시하다
시장이 급변할 때 투자해 큰 돈을
벌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인들은 어떤 식으로 재테크를 했을까?

利
息
長
利

조선시대 투자의 기본은 현대시대와
거의 비슷한데, 바로 **이식(利息:이자)** 이었다.

돈(쌀)을 굴려 이자를 붙이며
투자를 했던 것이다.

또한 이 이자소득을 얻기 위해 선호했던
투자방법이 바로 **장리(長利)**였다.

당시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장내’라고도 말하고,
‘장려’, ‘장래’라 부르는 지역도 있었다.



시골 어르신들이 푸념삼아 하는 말 중 하나가
“장리쌀보다 비싸게 붙여먹네”라는 말이었다.

그럼 ‘장리’가 무엇일까?
‘춘궁기 때 곡식을 꾸어주고,
가을 추수 때 돌려받는 이자’라는 말이다.

문제는 가을 추수 때 돌려받는
변리(邊利:원금에 대한 이자)인데,
빌렸으니 이자를 내는 건 상식이지만 그 액수가
어마어마 했다는 것이다.





조선시대 평균 이자율은 50%대였다.
오늘날로 치자면, 봄에 1천만원을 빌렸으면,
가을에 1천 5백만원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니 ‘장리쌀’이라는 말의 뉘앙스가 부정적일 수 밖에 없었던 것!

특 까놓고 말해서

조선시대 농민들의 1년 손익계산서를 뽑아보면 적자였다.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해서 이자율 50%짜리 장리쌀을 받아
춘궁기를 넘기고, 이후 가을 추수 때
이자와 원금을 다 갚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었다.



그렇다고 장리를 놓는 사람들을 무조건 탓할 수가 없는 것이,
쌀을 빌려주려면 쌀을 보관하기 위해 많은 관리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도 다 사정이 있어요,
쌀을 빌려주기 위해 대형 창고를 짓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쌀은 식품이나 유식률이 생기기 마련이죠.
쥐나 동물들에 의한 유식, 누수나 기타 보관상의 문제점 때문에
1년 평균 유식률은 10%가 넘고, 창고짓는 고정비와 관리비,
쌀의 유식률을 생각하면 50%이자가
많이 받느건 아닙니다.”



그래도 연리 50%라니! 상식밖의 이자라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문제는 돈(쌀)을 가진 자들은 너나할 거 없이
이 '장리'를 재테크의 최고봉으로 봤다는 점,
상공업이 제한됐다는 점, 농업국가로서 최고의 자산은
땅과 노비로 인정받던 시절이었기에
장리가 최고의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를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상공업 제한



농업국가



사농공상

상공업 제한 + 농업국가 + 사농공상

조선시대 양반들의 일기를 살펴보면
장리를 놓는 것에 목숨 걸고 덤벼들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만,
아이러니 한 것은 조선시대 부를 축적한 노비들이
가난한 양반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확인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메한 유교의 나라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조선도 역시
사람이 사는 나라였던 것이다.

